

성범죄 예방교육으로 아동·청소년 보호하자!

디지털 성범죄

OUT!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관문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주로 익명계정과 오픈채팅으로 호의와 친절을 가장하여 접근하는데,
기프트콘 같은 작은 선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필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전국 청소년 3,789명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 노출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노출 현황조사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총 3천 789명

- **조사 기간** | 2021년 6월~8월
- **조사 대상** | 전국 청소년(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중학생 10명 중 2명 오픈채팅 경험?!

청소년 10명 중 2명 가량(19.6%)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통로인 **오픈 채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여자 청소년의 21.7%는 **익명 계정을 보유·사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픈 채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9.6%



익명 계정을
보유·사용한 경험이 있다

21.7%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결과 ①

낯선 타인으로부터 **개인톡**을 받아본 적 있다?

오픈채팅을 해본 청소년 중 **75.4%**는
‘낯선 타인으로부터 개인톡을 받아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중학교 1,2학년 여자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 낯선 타인으로부터 **개인톡**을 받아본 적 있다

오픈채팅을 해본 청소년

75.4%

✓ **중학교 1, 2학년 여자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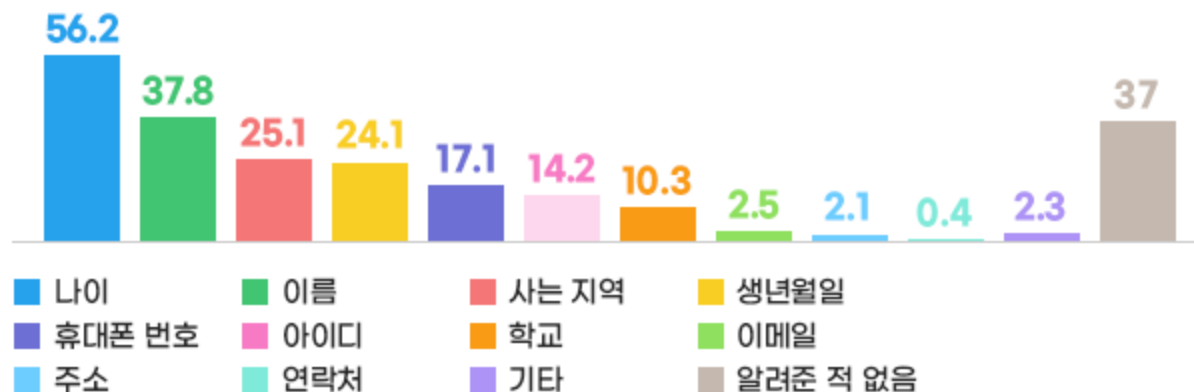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결과 ②

낯선 이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 있다?

전체 청소년 중 **나이**를 알려준 경험은 **56.2%**,
이름을 알려준 경우는 **37.8%**,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경험은 **17.1%**,
사는 지역이나 생년월일을 알려준 경우는
4명 중 1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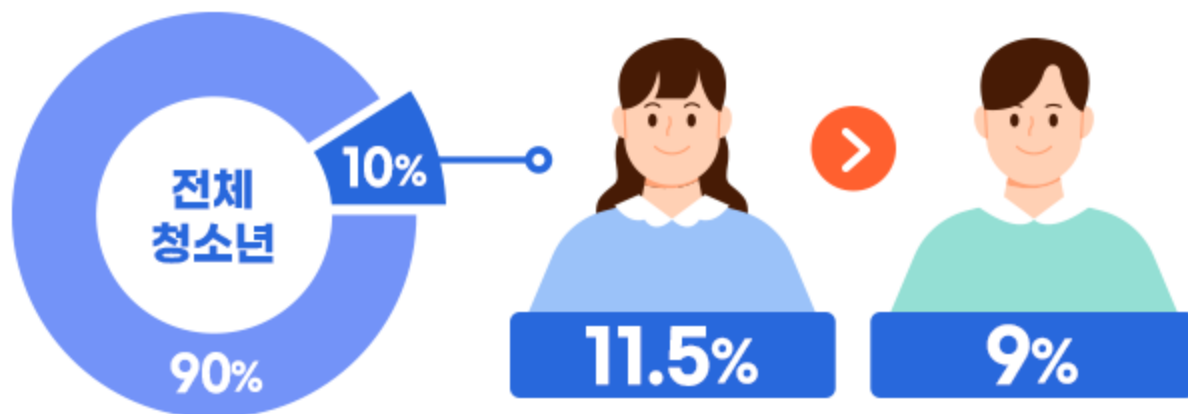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에게 **알려준 정보**



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적 있다?

전체 청소년 중 **10.2%**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여자 청소년(11.5%)이 **남자 청소년(9%)**보다 높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경험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결과 ④

관련 예방교육의 경험이 있다?

응답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개인정보 보호교육(58.4%)**이나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76.2%)**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으며, 관련 교육경험(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성폭력 예방)이 있는 집단이 **온라인 환경에서 위험한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 교육 경험에 따른 위험 행동 비율 낮음

- ✓ 익명 계정 부적절 사용으로 **이용 정지 경험** 비율 낮음
- ✓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 노출** 비율 낮음
- ✓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과 **위험한 장소에서 만남** 비율 낮음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이 있다

76.2%

개인정보 보호교육 경험이 있다

58.4%

조사결과,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익명 채팅** 등으로
낯선 이를 만나고 있었는데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에 대한
법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예방교육의 조기 실시 필요

초등학교 5학년 이전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특정 취약 시기 교육 프로그램 보완 필요

특정 취약 시기 중1, 2의 여자 청소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하고 표적화된 예방 교육 프로그램 필요



법적 제도적 보완책 필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실효성 있는 금지 및
처벌규정 필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 및 사회적책임
프로그램 활성화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구축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아동·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 실태와
온라인 그루밍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5학년 이전부터**
관련 예방교육을 집중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